

# 蘇東坡詞 研究\*

이흥진\*\*

## 【 차례 】

1. 序論
2. 蘇東坡 詞의 題材
  - 1) 詠懷言志詞
  - 2) 送別詞
  - 3) 家庭 愛情詞
  - 4) 友誼詞
  - 5) 詠物詞
  - 6) 農村詞
  - 7) 思鄉詞
3. 結論

## 【 국문초록 】

소동파는 중국고대문학사상 시와 산문 그리고 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뛰어난 작가이다. 그는 350편에 달하는 사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의 사는 제재의 확대를 그 커다란 특징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詠懷言志詞·送別詞·家庭 愛情詞·友誼詞·詠物詞·農村詞·思鄉詞의 일곱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蘇東坡, 詞風, 豪放派, 題材의 擴大.

\* 이 논문은 1995년도 경북대학교 연구과제 연구비로 작성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 序論

蘇軾(1036-1101)의 자는 子瞻 혹은 和仲, 號는 東坡이다(이후 서술의 편의상 “東坡”라고 약칭함). 그는 詩와 文章·詞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모두 뛰어났던 북송의 위대한 문학가이다. 그는 사 방면에서도 350편의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sup>1)</sup>

동파의 사 작품에 대하여 南宋 초기의 사론가 王灼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동파 선생은 문장의 나머지 일로 시를 짓고 넘쳐서 詞曲을 지었으니 높은 곳은 出神入天하고, 평평한 곳도 오히려 거울을 들여다보고 봄을 웃으며 무리를 돌아보지 않는다.(東坡先生以文章餘事作詩, 溢而作詞曲, 高處出神入天, 平處尚臨鏡笑春, 不顧傍觀.)<sup>2)</sup>

동파 선생은 음률에 마음이 취한 자가 아니고, 우연히 노래를 지어 위로 향한 한 가지 길을 가리키고 천하의 귀와 눈을 새롭게 하여 붓을 회롱하는 자가 비로소 스스로 떨칠 줄을 알게 되었다.(東坡先生非心醉於音律者, 偶爾作歌, 指出向上一路, 新天下耳目, 弄筆者始知自振.)<sup>3)</sup>

그러나 같은 시대의 李清照(1084-1156?)는 〈詞論〉 중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晏元憲(殊)·歐陽永叔(修)·蘇子瞻(軾)에 이르러서는 학문은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다하였는데 작은 가사를 지으니 단지 큰 바다에서 한 표주박의 물을 뜨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모두 句讀가 이어지지 않는 시일 뿐이며 더욱 왕왕 음률에

1) 唐圭璋 編纂, 王仲聞 參訂, 孔凡禮 補輯, 《全宋詞》(전5책)(中華書局, 1999. 1. 新1版) 제1책, 357쪽-431쪽에 따른 것이다.

2) 王灼, 《碧雞漫志》 권2, 83쪽(唐圭璋 編, 《詞話叢編》(전5책), 제1책에 수록, 北京: 中華書局, 1992. 10.).

3) 王灼, 《碧雞漫志》, 권2, 85쪽.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至晏元憲·歐陽永叔·蘇子瞻，學際天人，作爲小歌詞，直如酌蠡水於大海，然皆句讀不羈之詩爾，尤往往不協音律者，何邪?)<sup>4)</sup>

전자는 그가 “出神入天”하여 극히 뛰어나다고 칭찬하였고, 후자는 그가 “음률이 맞지 않는”(音律不諧) 사가 아니고 단지 시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극을 달리는 이러한 평가는 송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시대의 추이와 문학 관념의 변천, 평론자의 개성과 문학 취미의 차이에 따라 역대로 동파의 사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사람마다 매우 달랐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의 題材를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淸 周濟는 《介存齋論詞雜著》에서 “북송에는 의미없는 말로 노래에 응한 것이 있다.”(北宋有無謂之辭以應歌)<sup>5)</sup>라고 하였다. 이른바 “應歌”는 흥겨운 연회 석상에서 사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에게 주어 演唱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잠깐 맑은 즐거움을 돕는다”(聊佐淸歡)는 것이고 그 내용은 應景이 아니면 應酬이며 空虛할 뿐 아니라 또한 단조로웠다. 그 가운데 작자 자신의 감정과 志趣를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작자 자신의 소리도 왕왕 전달하기조차 매우 어려웠다. 이른바 “代言”이라는 것으로 왕왕 歌舞를 하는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가무를 하는 여자의 입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동파의 사는 이러한 좁은 틀을 깨뜨리고 寫景·紀遊·說理·詠史·言志·抒懷·悼亡·送別·鄉戀·友情·田家·國事·詠物·諧謔 등의 내용을 사

4) 胡仔 彙集, 廖德明 校點, 周本淳 重訂, 《苕溪漁隱叢話》(人民文學出版社, 1993. 11.) 後集 卷33, 267쪽; 王仲聞, 《李清照集校注》(中華書局, 1997. 11. 제2차), 194-195쪽.

5) 周濟, 《介存齋論詞雜著》, 1629쪽(唐圭璋 編, 《詞話叢編》, 제2책에 수록).

속에 써넣었다. 淸 劉熙載는 그가 “넣을 수 없는 일도 없고 말할 수 없는 뜻도 없다.”(無事不可入, 無意不可言)<sup>6)</sup>라고 하였다. 비록 과장된 점이 없지 않지만 바로 동파 사는 내용에서 이전에는 없던 풍부함과 충실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부하고도 충실한 내용 중에서 詞人의 다방면의 자아형상의 창조와 자아 情志의 發現을 완성하고, 사상적으로는 가무하는 여자의 소리와 입을 흉내내는 “代言”에서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立言”으로의 전환을 완성하고, 정감 내용의 “共性化”에서 “個性化”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그 중에는 물론 “應歌”적인 성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개인의 진실한 정감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淸末의 陳廷焯은 “동파의 사는 순전히 情으로 뛰어난데 정이 지극한 자는 사도 역시 지극한 것이다.”(東坡之詞, 純以情勝, 情之至者, 詞亦至.)<sup>7)</sup>라고 하였다.

둘째 사의 言語를 개혁하고 사의 音律을 타파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을 위하여 개혁·개척하기 위하여 동파의 사의 언어는 또한 晚唐·五代의 “花間”의 사인들의 文彩를 수식하고 좁은 시야를 개변하여 언어 사용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개척하고 전개하였다. 그는 前人들의 詩句를 사에 넣었고 口語·佛道語·成語 典故 등을 사에 넣어 자신의 사작의 언어에 전에 없던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음률상에서는 사의 음악에 맞추어 노래한다는 문체적 특징에 얽매이지 않고 사의 음악의 속박을 받지 않았다. 많은 史料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그는 음률을 전혀모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 중에는 가끔 음악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의 門人 중의 하나인 晁補之(1153-1110)가 “동파의 사는 사람들은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한다.”(東坡詞, 人謂多不諧音律.)<sup>8)</sup>라고 하였고, 후의 李清照(앞에 인용함)<sup>9)</sup>와 陸游<sup>10)</sup>(1125-1209)도

6) 劉立人·陳文華 點校, 《劉熙載集》(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3. 3.), 《藝概》 卷4 《詞曲概》, 134쪽.

7) 陳廷焯, 《白雨齋詞話》(中華書局, 1998. 2.) 권1, 제33조.

모두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사의 음악은 南宋 이후 점차 전해지지 않게 되었으며 사는 후에는 음악을 벗어난 純粹한 文學이 되었고 이 때문에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논술은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樂律의 구속을 벗어난 것은 제재를 더욱 쉽게 개척하고 전개하며 사상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婉約이 詞壇을 지배했던 종전의 국면을 깨뜨리고 풍격이 다채로운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사는 발전 초기에는 풍격이 결코 婉約함만이 아니었고 심지어 완약을 주로 하지 않았었다. 청대 말기에 敦煌에서 발견된 고대 寫本 중에 전해지는 民間詞 중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만당·오대가 시작되자 “花間”·“南唐”을 대표로 하는 절정이 나타났고 이러한 절정의 과정 중에서 “婉約”한 사풍과 “艷科”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매우 오랜 동안 사단은 모두 이러한 길을 따라 발전되었고 따라서 “正宗”이라고 인식되었다. 동파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창작으로 사의 표현 풍격을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게 된다. 동파의 사의 풍격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明 張綆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살펴보건대 사체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한 체는 婉約이고 한 체는 豪放이다. 완약한 자는 辭情이 蘊藉하기를 바라고 豪放한 자는 그 氣象이 恢弘한 것을 바라는데 대체로 역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예컨대 秦少游(觀)의 작품은 대부분 완약한 것이고 蘇子瞻(軾)의 작은 대부분 호방한 것이다.(按詞體大約

- 
- 8) 胡仔, 《苕溪漁隱叢話》(人民文學, 1993) 後集 권33에 인용된 《復齋漫錄》에 晁補之의 〈評本朝樂章〉을 인용하였음, 266쪽; 吳曾, 《能改齋漫錄》(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6.), 권16 〈樂府〉, 469쪽.
- 9) 胡仔, 《苕溪漁隱叢話》 後集 권33, 267쪽; 王仲聞, 《李清照集校注》, 194-195쪽. 주 4)와 같음.
- 10) 陸游, 《老學庵筆記》(《陸放翁全集》,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6. 6.), 권5, 33쪽: “世言東坡不能歌, 故所作樂府詞多不協.”

有二：一體婉約，一體豪放。婉約者欲其辭情蘊藉，豪放者欲其氣象恢弘，蓋亦存乎其人。如秦少游之作多是婉約，蘇子瞻之作多是豪放。(明 游元慶 校刊《增訂詩餘圖譜》 凡例 뒤에 덧붙여 있는 按語)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동파의 시는 豪放하다고 할 만한 것이 그의 전체의 사작 중에 단지 소수일 뿐이지만(사실은 호방도 역시 완약과 상대적인 것으로 결코 절대적인 표준은 없는 것이다), 가장 자신의 개성 특색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또한 후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소수의 호방한 작품이었다. 남송의 胡寅(1098-1156)이 向子諲(1085-1152)의 詞集을 위하여 쓴 《酒邊詞·序》<sup>11)</sup>에는 말하였다.

眉山의 蘇氏는 綺羅香澤의 자태를 깨끗이 씻고 纏綿宛轉의 도를 벗어나서 사 람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높이 노래하여 빼어난 희포와 浩然한 기세가 티끌과 때의 바깥에 뛰어넘게 하였다.(眉山蘇氏，一洗綺羅香澤之態，擺脫纏綿宛轉之度，使人登高望遠，舉首高歌，而逸懷浩氣，超乎塵垢之外.)

호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이러한 사 작품이다. 예컨대 〈念奴嬌·赤壁懷古〉(大江東去)<sup>12)</sup>·〈水調歌頭〉(明月幾時有)<sup>13)</sup>·〈八聲甘州·寄參寥子〉(有情風萬里捲潮來)<sup>14)</sup>·〈水調歌頭·黃州快哉亭贈張偓佺〉(落日繡簾捲)<sup>15)</sup>·〈念奴嬌·中秋〉(憑高眺遠)<sup>16)</sup>·〈歸朝歡·和蘇伯固〉(我夢扁舟浮廣澤)<sup>17)</sup> 등은 모두 그 중의 대표작이다. 동시에 또한 동파는 또한 기타 풍격

11) 金啓華·張惠民·王恒展·張宇聲·王增學 編, 《唐宋詞集序跋匯編》(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0. 5.), 117쪽. 〈酒邊詞〉라고도 한다.

1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三秦出版社, 1998. 9.), 권2, 35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上中下)(中華書局, 2002. 9.), 중책, 398쪽.

1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6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73쪽.

1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7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68쪽.

1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9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83쪽.

1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7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26쪽.

의 사도 많이 지었다. 예컨대 〈蝶戀花〉(花褪殘紅青杏疏)<sup>18</sup>와 〈浣溪沙〉(道字嬌訛苦未成)<sup>19</sup> 등이 그 대표작이다. 동파의 이러한 작품들은 전통적인 완약사와 비교한다면 자신의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것은 예술적으로는 濃艷함보다는 溫潤한 성분이 많고 내용상으로는 통속적인 것보다는 情致한 성분이 많다.

이상의 세 가지 점이 동파사의 특색이기고 하고 또한 동파사의 詞史에 대한 공헌이기도 하다. 동파사의 이러한 특색과 공헌은 작자의 “시를 가지고 사를 짓는다”(以詩爲詞)<sup>20</sup>는 사상 아래 생겨난 것이며 그가 詞體를 혁신하려고 한 의도의 산물이다. 胡適(1892-1962)은 일찍이 사를 “歌者의 사”(歌者之詞)·“시인의 사”(詩人之詞)·“詞匠의 사”(詞匠之詞)<sup>21</sup>(《詞選》 前言)라고 나누었는데 동파사는 이러한 혁신 때문에 “시인의 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에서 첫째의 특색 곧 제재의 확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논술하려고 한다.

## 2. 東坡詞의 題材

### 1) 詠懷言志詞

칭말의 劉熙載는 《藝概·詞曲概》 중에서 “동파의 시는 두보의 시와 매우 비슷하니 그것은 넣을 수 없는 뜻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東坡詞頗似老杜詩，以其無意不可入，無事不可言也。)라고 하였다. 동파

17)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31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37쪽.

18)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4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53쪽.

19)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6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94쪽.

20) 陳師道, 《後山詩話》, 309쪽(何文煥, 《歷代詩話》(상하)(中華書局, 1992. 5.)에 수록).

21) 胡適, 《唐宋詞三百首》(東方出版社, 1995. 4.), 〈序〉, 3쪽.

의 사에 대한 공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의 혁신과 詞境의 확대이다. 사가 민간 창작의 단계에 처했을 때는 반영된 사회면이 상당히 넓었지만 사라는 형식이 문인들의 손에 들어간 후에는 반영된 생활면이 매우 좁게 되었다. 동파 이전의 사인들 예컨대 멀리 오대의 溫庭筠·韋莊·李煜·馮延巳나 가까이 晏殊·柳永·歐陽修 등은 艷詞雅語, 나그네의 鄉愁, 閨房의 相思, 연회의 노래와 즐거움 혹은 퇴근 이후의 閑情逸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파는 사 중에 그의 사상 활동과 생활의 느낌, 抒情言志, 詠史詠物을 반영하여 萬象을 포함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파 이전의 사인들에게는 없던 것이다.

동파는 수많은 영회언지사를 지었다. 《尚書·舜典》에는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한다( 읊조린다).”(詩言志, 歌永言)<sup>23</sup>라고 하였다. 시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言志”에 있었다. 동파 이전에는 어떤 사인도 사를 시와 평등한 지위로 높인 사람이 없었다. 진정으로 사를 가지고 언지한 것은 동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대담한 혁신 정신으로 그의 풍부하고 복잡하고 활달한 내심 세계를 표현하여 사의 내용을 확대하였고 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동파 사는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沁園春〉<sup>24</sup>은 “임금을 堯舜에 이르게 한다”(致君堯舜)는 원대한 포부를 나타낸 것이다.

〈밀주로 가려고 일찍 떠났는데 말 위에서 子由(아우 蘇轍의 자)에게 부침〉  
(赴密州早行, 馬上寄子由)

孤館燈青,	외로운 客館에는 등불은 푸르고,
野店雞號,	들의 旅店에는 닭이 우는데,

22) 劉立人·陳文華 點校, 《劉熙載集》, 134쪽, 《藝概》 卷4 〈詞曲概〉. 주 6)과 같음.

23) 李民·王健 譯注, 《尚書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 10.), 19쪽.

2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32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34쪽.



旅枕夢殘.	나그네 베개에 꿈은 쇠잔하네.
漸月華收練,	점점 달빛은 흰 깃을 거두어들이고,
晨霜耿耿,	새벽 서리는 밝은데,
雲山摘錦,	구름 산은 비단을 펼치고,
朝露團團.	아침 이슬은 함초롬하네.
世路無窮,	세상 길은 끝이 없고,
勞生有限,	피로운 삶은 유한하니,
似此區區長鮮歡.	바쁘고 힘들어 늘 즐거움이 없는 듯하네.
微吟罷,	나직이 읊조리기를 그치고,
憑征鞍無語,	가는 말안장에 기대어 말도 없건만,
往事千端.	지난 일은 천 가지라네.

當時共客長安.	당시 함께 長安에 객이었으니,
似二陸·初來俱少年.	二陸(陸機와 陸雲)이 처음 오는 데 모두 젊었던 것과 같았네.
有筆頭千字,	붓끝의 천 개의 글자가 있고,
胸中萬卷,	가슴 속에는 만 권이 있으니,
致君堯舜,	임금을 堯舜에 이르게 하는 것,
此事何難.	이러한 일이 무엇을 어려워하겠는가?
用舍由時,	쓰임과 버림받음은 때를 따르고,
行藏在我,	(도를) 행하는 일과 숨어사는 일은 나에게 있으니,
袖手何妨閑處看.	손을 소매에 넣고 한가로운 곳에서 보더라도 무슨 상관 이 있겠는가?
身長健,	몸이 길이 건강하여,
但優游卒歲,	다만 해가 다 가도록 한가로이 노닐며,
且鬪尊前.	잠깐 술잔 앞에서 다투려네.

이 시는 熙寧 7년(1074) 9월 密州로 부임하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당시 동파는 39세였다. 새벽녘 객점의 외로움, 쇠잔한 등불, 닭의 울음 소리, 외로운 베개 이러한 쓸쓸한 환경은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아득한 정을 가장 잘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달빛은 깃을 거두어들이고”(月華收練)의

4구는 이미 달빛 아래 여행길에 오른 광경을 묘사한다. 객관 경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내심의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그리고 “세상길은 끝이 없네”(世路無窮)의 3구의 감탄을 발하는 것이다. 말을 타고 안장에 의지하여 낮게 읊조리니 지난날의 온갖 생각이 용솨음친다. 下片에서는 젊은 날의豪情壯志는 “임금을 堯舜에 이르게 한다”(致君堯舜)는 功業에 대하여 자신감이 넘친다. 동파 이전의 사인들은 동파처럼 사를 가지고 이러한 의론을 발한 적이 없다.

〈江城子〉(密州出獵)<sup>25)</sup>는 동파의 영회언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동파는 밀주에서 생활은 적막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이상과 강렬한 애국심을 표현하고 있다.

〈밀주에서 사냥에 나가다〉(密州出獵)

老夫聊發少年狂.	늙은이가 잠깐 젊은이의 미친 기를 발하여,
左牽黃.	왼쪽에는 누른 개를 이끌고,
右擎蒼.	오른쪽은 푸른 매를 잡았네.
錦帽貂裘,	비단 모자 담비 가죽옷으로,
千騎卷平岡.	천 필의 말이 평평한 언덕을 (먼지를) 말아올리며 달리네.
爲報傾城隨太守,	은 성의 사람들이 太守를 따르는 것에 보답하려고,
親射虎,	친히 호랑이를 쏘니,
看孫郎.	孫郎을 보라.
酒酣胸膽尙開張.	술은 거나하고 가슴은 더욱 탁 띄어 있으니,
鬣微霜.	귀밑머리에는 조금 서리가 내렸지만,
又何妨.	또 무슨 상관(憂)이 있으리.
持節雲中·何日遣馮唐.	雲中에서 符節을 잡으라고, 어느날 馮唐을 보낼 것인가?
會挽雕弓如滿月,	반드시 아름다운 활을 잡아당겨,
西北望,	서북쪽을 바라보며,
射天狼.	天狼星을 쏘리라.

2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4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46쪽.

이 시는 熙寧 8년 乙卯(1075)에 지어졌다. 동파의 나이 40세로 아직 늙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늙은이”(老夫)라고 하고 또 “잡간 발한다”(聊發)라고 하여 내심의 울적한 정서를 잘 형상하였다. 왼손에는 활을 잡고 오른손에는 검은 독수리를 들고 머리에는 비단 모자를 쓰고 몸에는 담비 가죽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동파의 각 시기의 창작 중에는 모두 田園으로 歸隱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 특히 黃州 시기에 두드러진다. <滿庭芳>(蝸角虛名)<sup>26)</sup>의 시는 다음과 같다.

蝸角虛名,	달팽이 뿔의 헛된 이름,
蠅頭微利,	파리 머리의 보잘것없는 이익,
算來著甚乾忙.	헤아리면 무엇 때문에 한갓 바쁜 것인가?
事皆前定,	일은 모두 전에 정해져 있는 법,
誰弱又誰強.	누가 약하고 또 누가 강할까?
且趁閑身未老,	또 한가로운 몸 아직 늙기 전에,
須放我·些子疏狂.	모름지기 나를 놓아 좀 疏狂해야 하리.
百年裏,	백년 동안에,
渾教是醉,	완전히 술취하여,
三萬六千場.	삼만 육천 장을 하게 해야 하리.

思量.	헤아리건대,
能幾許,	얼마나 될 것인가,
憂愁風雨,	시름은 비바람 같은데,
一半相妨.	반쯤은 서로 방해가 되리.
又何須,	또 어찌 모름지기,
抵死說短論長.	죽음에 이르도록 길고 짧으 것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幸對清風皓月,	다행히 맑은 바람 흰 달,
苔茵展·雲幕高張.	이끼 자리가 펼쳐지고 구름 장막은 높이 펼쳐져 있는 것 을 마주하고 있네.

26)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2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58쪽.

江南好,	江南은 아름다우니,
千鍾美酒,	천 잔의 맛좋은 술,
一曲〈滿庭芳〉.	한 노래 〈滿庭芳〉이라네.

“烏臺詩案” 文字獄은 동파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어 동파의 “임금을 요순에 이르게 하는”(致君堯舜) 정치적 이상은 지극히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동파는 황주에 있는 동안 老莊 철학에 더욱 심취하게 된다. 그는 功名과 利祿을 간파하고 名리에 대하여 “달팽이 뿔의 헛된 이름, 파리 머리의 보잘것없는 이익”(蝸角虛名, 蠅頭微利)이라고 보고 있으니 이것은 큰 재난을 당한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상이다. 그는 范蠡가 五湖에 浮遊한 길을 지향하고 陶淵明의 田園의 뜻을 본보기로 삼아 “오직 연명이, 전생이라네.”(只淵明, 是前生)<sup>27)</sup>(〈江城子〉(夢中了了醉中醒))라고 하였는데 은퇴의 원망이 그의 이 시기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는 심지어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가지고 〈哨遍〉(爲米折腰)<sup>28)</sup> 사를 지어 전원 생활에 대한 상상을 그리고 일종의 “나도 잊고 겸하여 세상도 잊는”(忘我兼忘世) 생활을 보내고 거문고와 책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 중에는 말하였다.

〈陶淵明은 〈歸去來〉를 지었는데 그 문사는 있지만 소리는 없었다. 나는 이미 東坡를 가꾸고 위에 雪堂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 누추함을 비웃는다. 홀로 鄱陽 董毅夫만은 찾아와 기뻐하고 이웃에 살 뜻이 있었다. 그래서 〈歸去來辭〉를 취하여 약간 樂括을 가하여 성률에 맞게 하여 의부에게 주었다. 만약 집의 동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동파에서 서로 따르며 가래를 풀어놓고 화답하고 쇠뿔을 두드리며 그 박자를 맞춘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陶淵明賦〈歸去來〉, 有其詞而無其聲. 余旣治東坡, 築雪堂於上, 人俱笑其陋. 獨鄱陽董毅夫過而悅之, 有卜隣之意. 乃取〈歸去來辭〉, 稍加樂括, 使就聲律, 以遺毅夫. 使家僮歌之, 相從於東坡, 釋耒而和之, 扣牛角而爲之節, 不亦樂乎!

2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2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52쪽.

2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8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88쪽.

爲米折腰，	쌀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因酒棄家，	술로 인하여 집을 버렸으니，
口體交相累。	입과 몸이 번갈아 서로 누가 되었네。
歸去來，	돌아가려고 하네，
誰不遣君歸。	누가 그대를 돌아가게 하지 않겠는가？
覺從前皆非今是。	종전은 모두 그릇되고 이제가 옳은 것을 깨달았네。
露未晞。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네。
征夫指余歸路，	나그네는 나에게 돌아갈 길을 가리키고，
門前笑語喧童稚。	대문 앞에는 웃고 말하는 어린애들이 시끄럽네。
嗟舊菊都荒，	탄식하네 옛 국화는 모두 거칠어지고，
新松暗老，	새 술은 어느덧 늙었는데，
吾年今已如此。	내 나이도 이제는 이미 이와같구나。
但小窗容膝閉柴扉。	다만 작은 창에는 무릎을 넣고 사립문은 닫혀 있네。
策杖看孤雲暮鴻飛。	지팡이를 짚고 외로운 구름에 저녁 기러기가 나르는 것 을 바라보네。
雲出無心，	구름이 나오는 것은 무심하고，
鳥倦知還，	새는 지치면 돌아갈 줄을 아니，
本非有意。	본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네。
噫！	아이！
歸去來兮。	돌아가려고 하네。
我今忘我兼忘世。	나는 이제 마를 잊고 아울러 세상을 잊었네。
親戚無浪語，	가까운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이 없고，
琴書中有真味。	거문고와 책 속에는 참 맛이 있네。
步翠麓崎嶇，	험한 푸른 산기슭에서 거닐고，
泛溪窈窕，	아름다운 내에 배를 띄우니，
涓涓暗谷流春水。	졸졸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봄 물이 흐르네。
觀草木欣榮，	풀과 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는 것을 살펴보니，
幽人自感，	숨어 사는 사람은 스스로 느끼네，
吾生行且休矣。	나의 삶이 장차 다하려 한다는 것을。
念寓形宇內復幾時。	생각건대 몸을 집 안에 부친 것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不自覺皇皇欲何之？	황급하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네。

委吾心・去留誰計. 내 마음을 맡겨 버렸으니 떠나고 머무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神仙知在何處? 신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가?  
 富貴非吾志. 부귀는 나의 뜻이 아니라네.  
 但知臨水登山嘯詠, 다만 물에 임하고 산에 올라 휘파람불고 읊조리며,  
 自引壺觴自醉. 스스로 술잔을 당겨 스스로 취할 줄은 알고 있네.  
 此生天命更何疑. 이 삶에 천명을 또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且乘流・遇坎還止. 잠깐 흐름을 타고 가다 구덩이를 만나면 또 멈추리라.

이 작품들은 모두 동파의 사상이 격렬한 투쟁을 겪은 후에 老莊 철학에 순종하는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동파의 歸隱의 정은 후기에 이르면 더욱 농후하게 되어 인간 세상의 榮枯哀樂에 점점 담박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行香子〉(清夜無塵.)<sup>29)</sup>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清夜無塵. 맑은 밤 티끌조차 없고,  
 月色如銀. 달빛은 은빛 같은데,  
 酒斟時・須滿十分. 술을 따를 때는 모름지기 꼭꼭 채워야 하리.  
 浮名浮利, 뜬 이름 뜬 이익에,  
 虛苦勞神. 부질없이 정신을 괴롭게 하네.  
 歎隙中駒, 탄식하네 틈 속의 망아지,  
 石中火, 돌 속의 불,  
 夢中身. 꿈 속의 몸인 것을.

雖抱文章, 비록 문장을 품고 있지만,  
 開口誰親. 입을 열어 누구와 친하겠는가?  
 且陶陶・樂盡天眞, 또 얼근히 취하여 천진함을 다 즐기리라.  
 幾時歸去, 언제나 돌아가서,  
 作箇閒人. 하나의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  
 對一張琴, 한 대의 거문고,

29)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2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25쪽.

一壺酒,            한 병의 술,  
一溪雲.            은 계곡의 구름을 마주하겠는가?

가슴 속에 憤懣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적 가운데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동파의 사 중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虞美人〉(持杯遙勸天邊月)<sup>30</sup> · 〈好事近〉(煙外倚危樓)<sup>31</sup> · 〈謁金門〉(秋池閣)<sup>32</sup> 등이 있다. 그는 이러한 작품 중에서 낙관적이고 광달한 정조로 마음의 깊은 곳의 소리를 流露하여 자연스럽고 和諧하여 사람을 감동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동파의 이러한 사들은 詞史上 처음으로 대량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소동파만이 감히 詞는 艷科라는 틀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자신의 지향과 고통을 사의 형식으로 반영하여 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사가 현실을 반영하는 생활면을 확대하였다. 이것이 동파의 사의 내용에 대한 혁신이다.

시의 영화언지의 전통은 《詩經》·《楚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후 建安 시대에서 六朝 시대를 거쳐 비록 풍격은 복잡하지만 영화언지의 작품은 이미 시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되었다. 唐代에 이르러서는 더욱 장관을 이루었다. 杜甫의 영화시는 바로 동파의 영화시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는 민간에서 탄생된 후에 사인들의 수중에 들어가서 비록 抒情을 주로 하였지만 그들이 펼친 정은 대부분 綺靡側艷함을 주로 하였다. 예컨대 溫庭筠의 사는 오로지 이별의 憂愁를 묘사하고 내심의 슬픔과 어쩔수 없는 탄식을 표현하였다. 北宋 前期의 시인은 시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생활과 정서를 사 중에서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사로 登山臨水の 즐거움을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깊은 정과 怨望 및 宴會의 즐거운 정취를 묘사하였지만 영화언지의

3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4, 71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866쪽.

3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5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872쪽.

3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7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870쪽.

내용은 단지 시에 나타낼 수 밖에 없었으며 사 중에서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웠다. 北宋 詩文의 개혁 운동의 창도자이고 동파가 존경한 스승 歐陽修조차도 또한 겨우 〈踏莎行〉(候館梅殘)<sup>33)</sup>과 같은 纏綿宛轉한 이별의 정을 묘사했을 뿐이다.

동파만이 사를 “멋대로 벗어나고 뛰어난”(橫放傑出)<sup>34)</sup> 경계에 도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시가 중의 영회언지를 사 속에 옮겨 넣어 자신의 포부 지향을 서술하고, 사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게 하였다. 우리는 동파의 악부 속에서 동파의 내심 세계의 여러 방면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생생한 동파의 재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장과 시에서만이 아니라 사 속에서도 또한 동파의 인생 역정 중의 발자취를 전면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이것이 동파 사의 전인들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送別詞

동파의 송별사는 대략 50편에 달한다. 그것은 각각의 창작 시기에 분포되어 있지만 熙寧 7년(1074) 杭州 재임 중에 비교적 많이 지어졌고 집중되어 있다. 이 해에 그는 모두 24수의 송별사를 지었는데 그 대상은 두 사람 곧 陳襄과 楊繪(元素)에 집중되어 있다. 기타의 몇 작품은 柳瑾(子玉)·許仲塗와 孫洙(巨源)·陳令舉 등을 송별한 것이다.

《東坡樂府》에 수록된 첫 번째 송별사는 〈昭君怨·金山送柳子玉〉<sup>35)</sup>이다.

誰作桓伊三弄。	누가 桓伊의 三弄을 지어,
驚破綠窗幽夢。	푸른 창이 깊은 꿈을 놀라 깨뜨리는가?

33) 朱德才 主編, 《歐陽修·周邦彥詞》(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9, 1.), 13쪽.

34) 胡子, 《苕溪漁隱叢話》, 後集 권33, 266쪽에 인용된 晁補之(无咎)의 말.

3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5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9쪽.



新月與愁煙。	초승달과 시름젖은 안개가,
滿江天。	강과 하늘에 가득하네.
欲去又還不去。	떠나고 싶다가도 또 도리어 떠나가지 않으니,
明日落花飛絮。	내일은 지는 꽃과 날리는 버들솜이리.
飛絮送行舟。	날리는 버들솜이 떠나가는 배를 배웅하고,
水東流。	물은 동쪽으로 흐르리.

子玉의 이름은 瑾, 吳 사람으로 王安石(1021-1086)과 同年이다. 동파의 시집 중에는 또 〈次韻柳子玉過陳絕糧二首〉<sup>36)</sup> 등 12수의 시가 있다. 그는 〈祭柳子玉文〉<sup>37)</sup> 중에서 “재주는 높아 세속을 끊었지만, 성품은 성기어 험뜯음을 불러들였다.”(才高絕俗, 性疏來詬)의 말이 있는데 그의 재주와 학문에 대한 敬服의 정이 글에 넘친다. 이 사에서 “桓伊의 三弄(桓伊三弄) 곧 王徽之와 桓伊가 서로 이름을 사모하여 저[笛]를 불어 三弄을 지었다는 고사를 가지고 상호간의 敬佩의 정을 표현하였다. 上片에서는 악성 및 경색을 묘사하여 초승달과 시름젖은 안개가 江天에 가득한 아득한 환경으로 이별의 시름을 나타내었다. 下片에서는 송별의 정을 그렸다. 이 사 중에서 동파는 특히 題材・景色・環境과 인물 정서의 통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담담한 필치로 이별의 意境을 표현하고 깊고 진지한 우정을 나타내었다.

陳襄을 송별한 사는 杭州 시기에 〈訴衷情・送述古迓元素〉<sup>38)</sup> 등 7수가 있다. 진양의 자는 述古, 福州 侯官 사람이다. 進士가 된 후에 浦城 主簿가 되었는데 治政에 뛰어나 富弼의 칭찬을 받고 추천되어 秘閣校理・判祠部가 되었다. 후에 常州・明州의 知州, 또 同修起居注・知諫院이 되었고 侍御史知雜

36)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전8책)(中華書局, 1982. 2.) 권6, 274쪽.

37)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제5책)(北京:中華書局, 1990. 4. 제2차), 권63, 1938-9쪽.

38) 薛瑞生, 《蘇軾詞編年箋證》, 권1, 75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9쪽.

事로 바뀌었다. 王安石과 政見이 맞지 않아 陳州로 나갔고 熙寧 5년 5월 杭州 知州가 되어 樞密直學士知通進, 銀臺司 兼侍讀으로 判尙書都省이 되었다. 神宗은 일찍이 그에게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물었는데 그는 司馬光·范純仁·蘇軾 등 33인을 추천하였다. 卒年은 64세, 給事中을 追贈하였다(《宋史》 권321 <陳襄列傳>에 따름). 진양이 항주 지주로 있을 때 바로 동파가 杭州 通判으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였다. 그들은 柳瑾(子玉)·張先(990-1078)·楊繪(元素)·李常(公擇)·陳令舉·劉孝叔 등과 늘 아름다운 호수와 산에서 모이는 詩詞의 친구였으며 특히 장선도 이 때 진양과 양회를 송별하는 사를 많이 지었다. 장선의 詞集 《安陸詞》 중에도 또한 <虞美人·述古移南郡>(思如明月家家到)<sup>39</sup>과 <熙州慢·贈述古>(武林鄉)<sup>40</sup>의 2수가 있다.

진양이 항주를 떠날 때 동파가 쓴 <訴衷情·送述古遜元素><sup>41</sup>는 초기 송 별사의 풍격 특징을 엿볼 수 있다.

錢塘風景古今奇.	錢塘의 풍경은 예나 이제나 기이하네.
太守例能詩.	태수는 의례 시에 능하였네.
先驅負弩何在,	앞서 달리는 자는 쇠뇌를 지고 어디에 있는가?
心已浙江西.	마음은 이미 浙江의 서쪽이라네.

花盡後,	꽃이 다한 후,
葉飛時.	잎이 나를 때라네.
雨淒淒.	비는 쓸쓸하다네.
若爲情緒,	만약 정서 때문이라면,
更問新官,	다시 새 官에게 (안부를) 묻고,
向舊官啼.	옛 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네.

39) 《張先柳永詞》(宋詞十八家), (文化藝術出版社, 1999. 1.), 244쪽. 이 사는 熙寧 7년 (1074)에 지은 것이다.

40) 《張先柳永詞》, 243쪽. 이 사도 역시 熙寧 7년(1074)에 지은 것이다.

4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75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9쪽. 주 38)과 같음.

이 때 양회는 應天에서 杭州로 왔고 진양은 知應天府가 되어 바로 양회와 그 직을 맞바꾸었다. 그는 진양을 배웅하고 양회를 맞는 심정을 매우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동파는 淵博한 지식으로 그의 총명을 구사하여 送舊迎新的 감정의 모순을 처리하였다. 감정은 진지하고 필치는 詼諧하고도 隱重하며 寫景은 清麗飄逸하여 동파의 瀟灑風流한 才子 氣質을 나타내고 있다.

양회는 부임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또 翰林學士로 서울로 돌아갔다. 이 때 동파도 역시 密州로 옮겨 항주를 떠났기 때문에 양회를 송별한 시는 이별하는 도중에 쓴 것이다. 양회는 동파와 함께 항주를 떠나 밀주로 갔다. 이 때 양회와의 송별사는 모두 11수에 이른다.

양회의 자는 元素, 四川 綿竹 사람으로 神宗 때 應召하여 修起居注가 되었고 知制誥·知諫院이 되었다. 王安石과 政見이 맞지 않아 마침내 그만두고 侍讀學士·知博州를 지내고 應天府·杭州를 역임하고 다시 翰林學士가 되었다. 후에 또 무고를 당하여 荊南節度副使가 되었다. 元祐 초에 다시 天章閣待制가 되었고 다시 知杭州가 되었다. 卒年은 62세이다.

〈醉落魄·席上呈楊元素〉<sup>42)</sup>는 다음과 같다.

分攜如昨。	이별이 어제 같은데,
人生到處萍飄泊。	인생 가는 곳마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네.
偶然相聚還離索。	우연히 서로 만났다 또 헤어지니,
多病多愁。	병도 많고 시름도 많아,
須信從來錯。	모름지기 종래가 잘못된 것을 믿어야 하리.
尊前一笑休辭卻。	술잔 앞에서 한 번 웃으니 사양하지 말라,
天涯同是傷淪落。	하늘 가에서 똑같이 운락을 가슴아프게 여기네.
故山猶負平生約。	고향의 산은 오히려 평생의 약속을 어겼으니,
西望峨眉，	서쪽 峨眉山을 바라보고,

42)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2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23쪽.

長挾歸飛鶴, 길이 날아 돌아가는 학을 부러워하네.

동파와 양희는 동향이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되었고 3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별하게 되었지만 떠돌이 인생, 이별과 만남의 덧없음의 탄식을 발하고 “하늘 가에서 똑같이 운락을 가슴아프게 여기는”(天涯同是傷淪落)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을 묘사하고 있다.

항주 시기의 송별사에는 진양과 양희 외에도 또 陳令舉·許仲塗·孫巨源 및 蘇州를 이별하는 사가 있다. 동파의 초기의 송별사에는 감정이爽快明朗하고 풍격이 清麗飄逸한 특징이 있다.

동파가 밀주에 도착한 이후 元祐 7년(1092)에 이르기까지 또 24수의 송별사를 썼는데 그중에는 編年할 수 없는 것이 3수이다. 이러한 송별사는 초기의 작품과 비교하면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송별의 대상도 상당히 광범하여 창작 시간은 밀주에 도착한 이후의 각 생활 시기에 분포되어 있다. 송별한 사람은 文安國·李常(公擇)·李公恕·梁左藏·劉行甫·徐君猷·王勝之·錢鏐(穆父)·王箴·錢公永·江公著·葉淳老·馬中玉·張秉道·趙晦之·蘇伯固·王友道·張元康·梅庭老 등이 있고, 지방으로는 徐州·黃州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의 창작 시간은 熙寧 9년 丙辰(1076)에서 元祐 7년 壬申(1092)까지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길다. 우리는 동파의 이러한 송별사 중에서 그의 예술상의 성숙의 맥락과 궤적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진실한 감정과 문시는 동파의 달관적이고 상쾌명랑하며 주어진 처지에 따라 잘 적응하는 성격을 나타내는데, 송별사 중에 특히 두드러지게 체현되어 있다. <滿江紅·正月十三日雪中送文安國還朝><sup>43)</sup>에는 말하였다.

天豈無情, 하늘이 어찌 무정하리오?

4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50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59쪽.

天也解·多情留客. 하늘도 역시 다정하여 객을 만류할 줄 안다네.  
 春向暖·朝來底事, 봄은 따뜻하게 되려고 하는데 아침에는 무슨 일로,  
 尙飄輕雪. 아직도 실눈이 흩날리는가?  
 君遇時來紆組綬, 그대는 가끔 외서 인등이 끈을 들렀으니,  
 我應老去尋泉石. 나는 마땅히 늙으면 샘과 바위를 찾을 것이네.  
 恐異時·杯酒復相思, 다른 때 한 잔 술로 다시 서로 그리워할까 두렵네,  
 雲山隔. 구름과 산이 막혀 있는데.

浮世事, 뜬 세상의 일.  
 俱難必. 함께 하기는 반드시 하기는 어렵네.  
 人縱健,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頭應白. 머리는 마땅히 쉰 것이네.  
 何辭更一醉, 어찌 다시 한 번 취하는 것을 마다할 것인가?  
 此歡難覓. 이 즐거움은 찾기가 어려운 것을.  
 不用向·佳人訴離恨, 좋은 임에게 이별의 한을 호소할 필요가 없으니,  
 淚珠先已凝雙睫. 눈물 방울은 먼저 하마 두 눈썹에 엉겼네.  
 但莫遣·新燕卻來時, 다만 새 제비가 돌아올 때,  
 音書絕. 소식이 끊기게 하지 말라.

동파는 문안국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문안국은 곧 廬江 文郎이다.

### 3) 家庭愛情詞

동파는 정이 진실하고 감정이 극히 풍부한 시인이다. 과거에 어떤 논자들은 동파의 악부는 정에 모자란다고 비난하였는데 일찍이 金의 王若虛는 이미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 적이 있다.

晁无咎(補之)는 眉山公(蘇東坡)의 시는 정에 부족하니 대개 이 경지를 겪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陳後山(師道)은 宋玉은 巫山 神女를 알지 못하였지만 능히 그것을 읊을 수 있었으니 어찌 鬚을 기다린 다음에야 알겠는가 라고 하

였다. 이것은 다만 공에 있어서는 정에 미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아아! 風韻이 東坡와 같은데 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晁无咎云: 眉山公之詞短於情, 蓋不更此境耳. 陳後山曰: 宋玉不識巫山神女, 而能賦之, 豈待景而後知. 是直於公爲不及於情也. 嗚呼, 風韻如東坡, 而謂不及於情, 可乎?)<sup>44)</sup>

사실상 동파의 사 중에는 가정의 정애에 관련된 사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적이다.

동파는 아우 蘇轍과 어려서부터 부친의 교훈을 받았고 함께 長安으로 나와 놀고 함께 科擧에 나아가고 함께 及第하였다. 두 형제는 정치적으로 관점이 일치하였으며 동파가 “烏臺詩案”으로 인하여 獄에 들어갔을 때는 소철이 온갖 방법으로 구제하였고 자신의 벼슬 자리를 바쳐서라도 형을 위하여 贖罪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동파는 黃州로 貶謫될 때 소철도 역시 貶職을 당하였다. 동파는 일생 동안의 기구한 생활 역정 중에서 비록 소철과 각각 하늘 끝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詩歌詞章의 형식으로 속마음을 서로 토로하고 서로 위로하였으며 진지하고 성실함이 지극하였다 이러한 手足의 情誼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형제는 환난 중에서도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피차간의 좌절과 선택에 대하여 모두 깊은 이해와 동정이 있었다. 동파의 시집 중에는 소철과 唱和한 시와 소철을 그리워하는 시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 형제간의 예술 심미관도 매우 일치한다. 형제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고 양보하고 서로 창화하여 서로 우애하였는데 확실히 人倫之樂의 모범이었다. 《東坡樂府》 중에도 형제의 정의를 묘사한 시는 역시 서로 다른 측면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우 소철에 대한 수족의 정을 반영하고 있다. 〈水調歌頭·丙辰中秋, 歡飲達旦大醉, 作此篇, 兼櫛子由〉<sup>45)</sup>는 달을 묘사

44) 《濟南詩話》(丁福保 輯, 《歷代詩話續編》에 수록, 北京: 中華書局, 1983. 3.), 권 2, 517쪽.

45) 薛瑞生, 《東坡樂府箋證》, 권1, 16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73쪽.

하고 정을 편 것으로 천고의 절창이라고 할 수 있다.

明月幾時有，	명월은 언제 있었는가?
把酒問青天。	술을 잡고 푸른 하늘에 묻네.
不知天上宮闕，	알 수 없네 하늘 위의 궁궐은.
今夕是何年。	오늘 저녁이 무슨 해인지?
我欲乘風歸去，	나는 바람 타고 돌아가고 싶지만，
惟恐瓊樓玉宇，	다만 두렵네 옥 누각 옥 집에，
高處不勝寒。	높은 곳이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
起舞弄清影，	일어나서 춤추어 맑은 그림자를 희롱하니，
何似在人間。	어떻게 인간 세상에 있는 것만 하겠는가?

轉朱閣，	붉은 누각을 돌아，
低綺戶，	아름다운 창을 내려가，
照無眠。	잠 못 이루는 이를 비추어 주네.
不應有恨，	한을 품어서는 안 되니，
何事長向別時圓。	왜 언제나 이별할 때만 둥근 것인가?
人有悲歡離合，	사람은 슬픔 기쁨과 이별 만남이 있고，
月有陰晴圓缺，	달은 흐림 개임과 둥금 이지러짐이 있으니，
此事古難全。	이 일은 예로부터 온전하기 어렵다네.
但願人長久，	다만 바라건대 사람이 오래 살아，
千里共嬋娟。	천 리에 아름다운 달을 함께하기를.

형제의 정치적 이상 및 생활 의취는 같았고, 기구한 벼슬 속에서도 형제 두 사람은 항상 서로 勉勵하고 위로하였다. 동파의 〈水調歌頭〉(安石在東海)<sup>46)</sup>는 형제간의 공통된 바람과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는 熙寧 10년 丁巳(1077) 8월 15일 中秋의 밤에 지은 것이다. 이 해 4월 동파는 소철과 開封에서 동행하여 서주에 도착하여 취임하였고, 소철은 서주에서 4개월 동

4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8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11쪽.

안 머물다가 南都留守箴判에 부임하려고 하였다. 중추절에 소철이 〈水調歌頭〉(離別—何久)<sup>47</sup>를 지어 작별하자 동파가 이 사를 지어 화답한 것이다.

〈나는 작년에 東武(곧 密州)에 있었는데 〈水調歌頭〉를 지어 子由에게 부쳤다. 올해 자유가 彭門(곧 徐州)에서 서로 따르기를 백 여 일 中秋를 지나서 떠나갔는데 이 곡을 지어 이별하였다. 나는 그 말이 지나치게 슬펐기 때문에 그것에 화답하였다. 그 뜻은 일찍 은퇴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고 은퇴하여 서로 따르는 즐거움을 가지고 위로한 것이다.〉(余去歲在東武, 作〈水調歌頭〉以寄子由. 今年, 子由相從彭門百餘日, 過中秋而去, 作此曲以別. 余以其語過悲, 乃爲和之, 其意以不早退爲戒, 以退而相從之樂爲慰云.)

安石在東海, 從事鬢驚秋.	謝安은 東海에 있었는데, (정치에) 종사할 때 귀밑머리가 (벌써) 가을 서리 같음에 놀랐었네.
中年親友難別, 絲竹緩離愁.	(王羲之는) 中年에 친우와 이별하기 어려워, 絲竹으로 이별의 시름을 풀었네.
一旦功名遂, 準擬東還海道, 扶病入西州.	(謝安은) 일단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루면, 반드시 동쪽으로 바닷길을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결국) 병든 몸을 안고 西州城으로 들어갔네.
雅志困軒冕, 遺恨寄滄州.	평소의 뜻이 벼슬[軒冕]에 곤란하여, 남은 한을 滄州에 부쳤네.
歲云暮, 須早計, 要褐裘.	해는 저물고, 모름지기 일찍이 헤아려, 베옷과 가죽옷으로,
故鄉歸去千里,	고향 천 리로 돌아가.

4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91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962쪽에 수록되어 있다: “離別—何久, 七度過中秋. 去年東武今夕, 明月不勝愁. 豈意彭城山下, 同泛清河古汴, 船上載(涼州). 鼓吹助清賞, 鴻雁起汀洲. 坐中客, 翠羽帔, 紫綺裘. 柔娥無賴西去, 曾不爲人留. 今夜消尊對客, 明夜孤帆水驛, 依舊照離憂. 但恐同王粲, 相對永登樓.”



佳處輒遲留.	좋은 곳에 머물러고 하네.
我醉歌時君和,	내가 취하여 노래할 때 네는 화하고,
醉倒須君扶我,	취하여 넘어지면 모름지기 네가 나를 부축해야 하니,
惟酒可忘憂.	오직 술만이 시름을 잊을 수 있다네.
一任劉玄德,	오로지 劉玄德에게 맡기고,
相對臥高樓.	서로 마주보며 높은 누각에 드러누우리라.

그는 東晉 謝安의 사적으로 그들 형제 두 사람에게 건주었다. 사안은 부귀와 벼슬을 사모하지 않았다. 비록 조정에서 임직할 때라도 東山에 퇴거할 뜻을 시종 변하지 않았으며 功名成就한 후에는 병을 핑계하고 西州에 은퇴하였다. 이것으로 아우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후의 정경을 상상한 것이다. 사안의 전고로 소철과 이별할 때의 서로의 위로와 격려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수족의 정이 듬뿍 담겨있다.

형제가 은퇴한다는 생각은 동파는 결국 실현할 수가 없었는데, 元祐 7년 壬申(1092) 潁州에 있을 때 지은 〈滿江紅·懷子由作〉(清潁東流)<sup>48)</sup>에 잘 나타나 있다. 동파 형제는 일생 동안 이별하는데 항상 시와 사를 편지로 삼고 詩詞를 가지고 서로 위로 하였다. 그는 일찍이 소철에 대하여 “내가 천하의 선비들을 따랐지만, 자네와 즐거웠던 적은 없었네.”(吾從天下士, 莫如與子歡)<sup>49)</sup>라고 하였는데 그들 형제 사이의 수족의 정은 극히 감동적이다.

동파의 가정 생활은 역시 자주 곡절을 겪었고 자주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19세에 鄉貢進士 王方の 딸 王弗을 아내로 맞았다. 왕불은 27세 때 서울에서 죽었다. 熙寧 8년 乙卯(1075) 정월 20일 밤에 동파는 꿈을 꾸고 기록하여 〈江城子〉<sup>50)</sup>를 지었다.

4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0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95쪽.

49) 蘇軾, 〈和子由苦寒見寄〉(清 馮應榴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中華書局, 1982. 2.), 권5, 215쪽).

5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3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41쪽.

十年生死兩茫茫.	십 년 생사에 들어 아득한데,
不思量.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自難忘.	스스로 잊기 어렵네.
千里孤墳·無處話淒涼.	천 리 외로운 무덤 처량함을 말할 곳도 없네.
縱使相逢應不識,	비록 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모를 것이니,
塵滿面,	티끌이 얼굴에 가득하고,
鬢如霜.	귀밑머리는 서리와 같으니.

夜來幽夢忽還鄉.	밤에 깊은 꿈에 홀연 고향으로 돌아갔네.
小軒窗.	작은 처마의 창에,
正梳妝.	한창 단장하고 있었네.
相顧無言·惟有淚千行.	서로 돌아보며 말없이 오직 눈물 천 줄기만이 있었네.
料得年年腸斷處,	헤아리건대 해마다 애가 끊기는 곳,
明月夜,	보름달 밤,
短松崗.	짧은 소나무 언덕이었네.

수많은 사집 중에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悼亡詞는 마땅히 이것이 또한 첫번 제일 것이다. 悼亡詩는 동파 이전에도 몇 사람의 시인이 지은 바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西晉 太康 시대의 시인 潘岳의 〈悼亡詩〉<sup>51)</sup>, 唐代 元稹의 〈遣悲懷三首〉<sup>52)</sup>, 李商隱의 〈正月崇讓宅〉<sup>53)</sup>과 〈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見招小飲，時予以悼亡日近不去，因寄〉<sup>54)</sup>가 있다.

동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성은 王氏, 이름은 朝雲(1063-96)이었다. 熙寧 7년(1074) 그가 杭州에 있을 때 시녀로 거두었는데 당시 조운의 나이는 겨우 12세였고 후에 侍妾이 되었다. 紹聖 3년(1096) 7월 壬辰에 惠州에서

51) 蕭統 選編, 《六臣注文選》(浙江古籍出版社, 1999. 3.), 권23, 412쪽.

52) 元稹, 楊軍 箋注, 《元稹集編年箋注》(三秦出版社, 2002. 6.), 〈三遣悲懷〉, 172-176쪽. 이 시는 《全唐詩》에는 〈遣悲懷三首〉로 되어 있다.

53) 李商隱, 劉學鍇·余恕誠 集解, 《李商隱詩歌集解》(전5책)(中華書局, 1988. 12.), 제3책, 1354쪽.

54) 李商隱, 劉學鍇·余恕誠 集解, 《李商隱詩歌集解》, 제3책, 1088쪽.

죽었다. 그해 10월 매화가 피었는데 동파는 梅花詞 〈西江月〉<sup>55)</sup>을 지어 物에 寄託하여 사람을 비유하여 매화의 고결함으로 조운을 상징하고 찬미하였다.

〈매화〉(梅)

玉骨那愁瘴霧，	옥골이 어찌 유독한 안개를 시름하리오?
冰姿自有仙風。	얼음 같은 자태 스스로 선인 같은 풍도가 있네.
海仙時遣探芳叢，	해선이 때대로 보내어 향기로운 떨기를 찾으니，
倒掛綠毛玄鳳。	거꾸로 푸른 털의 봉황을 걸어 놓았네.

素面常嫌粉澆，	흰 얼굴은 항상 분으로 더러워짐을 꺼렸으니，
洗妝不褪唇紅。	화장을 씻어도 입술의 붉음은 가시지 않네.
高情已逐曉雲空，	고상한 정은 이미 새벽 구름 하늘을 쫓아가니，
不與梨花同夢。	배꽃과 꿈을 함께 하지 않네.

동파가 그린 형제와 처첩에 관한 시는 감정과 文辭가 淒婉하고 진지한 심경과 清麗한 詞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들은 《東坡樂府》 중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4) 友誼詞

《東坡樂府》 중에는 송별사로서 이 우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師友·師生 사이의 情誼를 묘사한 수많은 사가 있는데 내용은 송별사와 역시 구별된다. 동파는 師長을 존경하고 친구와의 우의를 珍重하게 여겼고 학생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도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와 문장 중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악부 중에서도 역시 동파의 이러한 성실하고 진지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5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5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85쪽.

동파는 歐陽修(1007-1072)를 가장 추앙하고 사모하였다. 구양수는 景德 4년 丁未(1007)에 태어나서 24세에 진사에 급제한 후에 문장으로 이름이 천하에 으뜸이었다. 동파는 구양수보다 29세 어렸는데 그는 7-8세에 구양수의 학문을 景慕하였다. 동파가 禮部試에 나아가자 구양수는 後進을 獎掖하여 동파의 문장을 읽을 때 梅堯臣(1002-1059)과 “통쾌하구나! 이 늙은이는 마땅히 이 사람을 피하여 머리 하나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快哉! 老夫當避此人出一頭地.)라고 하였다. 구양수는 당시 일대의 문단의 宗師로서 그의 추천과 칭찬은 동파의 명성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 동파는 일생동안 구양수의 학문과 문장을 배웠고 구양수의 忠直敢言을 모범으로 삼아 역경 중에서도 태연하게 처하였고 후진을 애호하고 추천하였다. 구양수의 사후에는 문장을 지어 침통한 애도를 표하였다. 동파의 구양수에 대한 敬重은 〈祭歐陽文忠公文〉<sup>56)</sup> 중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그는 은사의 정의를 잊지 못하고 구양씨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둘째 아들 蘇迨가 구양수의 손녀와 혼인을 맺어 친척이 되기도 하였다.

《東坡樂府》 중에는 동파의 구양수에 대한 깊은 회념을 반영한 사가 몇 수가 있다. 〈西江月·平山堂〉<sup>57)</sup>은 다음과 같다.

三過平山堂下，	平山堂 아래를 세 번 지났는데，
半生彈指聲中．	반생이 손가락 튀기는 동안이라네．
十年不見老仙翁．	십 년 동안 늙은 仙翁을 보지 못했건만，
壁上龍蛇飛動．	벽 위의 龍蛇는 날아 움직이네．
欲吊文章太守，	문장 태수를 조문하려고 하는데，
仍歌楊柳春風．	여전히 버들과 봄 바람을 노래하네．
休言萬事轉頭空．	만사는 머리를 돌리는 동안에 텅빈다고 말하지 말라．
未轉頭時是夢．	고개를 돌리지 않을 때는 꿈이라네．

56)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63, 1937쪽.

5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22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33쪽.

平山堂은 구양수가 揚州에 임직할 때 지은 것이다. 동파는 熙寧 4년 辛亥(1071) 9월에 항주로 부임할 때 소철이 배웅하여 潁州에 이르러 함께 구양수를 배알하였다. 이 사는 元豐 2년 己未 4월에 지은 것으로 이미 9년이 떨어졌지만 사 중에 10년이라고 쓴 것은 押韻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파가 평산당을 세 번 지나며 자신의 은사를 弔問하였는데 감정이 진지하고 절실하며 憶念의 정이 넘친다.

前輩에 대한 情誼가 이처럼 깊지만 동파의 친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진지하여 동파의 친구와 창화한 사들도 모두 서로 격려하고 鞭策하고 내심의 감개를 쏟고 속마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가 陳海州에게 써보낸 사의 小序에는 “陳海州에게 준다. 진은 일찍이 眉縣의 현령이었는데 명성이 있었다.”(贈陳海州。陳嘗爲眉令，有聲。)라고 하였다. 진해주는 일찍이 眉山縣의 縣令을 지냈는데 그들은 同鄉이다. 동파의 〈浣溪沙〉<sup>58</sup>는 그와 이 진씨 성의 현령과의 우의를 추억한 것이며, 과거에는 고향의 현령이었지만 현재 해주에서 또 다시 만난 것이다. 동파는 21세 때 사천을 떠났으니 熙寧 7년에 해주를 지날 때는 이미 18년이 지났다. 친구들이 서로 만나 옛날을 추억하는 정이 생겨 그는 진현령의 政績을 찬양하고 인생 浮沈의 감개를 발하였다.

長記鳴琴子賤堂。	길이 기억하네 거문고를 울리던 자천의 당에,
朱顏綠髮映垂楊。	붉은 얼굴 검은 머리털이 수양버들을 비치고 있네.
如今秋髮數莖霜。	이제는 가을 귀밑털 몇 가락이 서리라네.
聚散交遊如夢寐。	만나고 헤어지는 친구들 꿈을 꾸는 것 같으니,
升沈閑事莫思量。	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한가로운 일은 생각하지 말라.
仲卿終不忘桐鄉。	仲卿은 끝내 桐鄉을 잊지 않았단네.

徐君猷는 당시 黃州의 태수로 그는 동파의 재능을 매우 敬重하였다. 동파

5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2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29쪽.

가 비록 옥에서 석방되어 황주에 왔지만 그는 도리어 手足처럼 대접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동파도 역시 매우 존중하였다. 황주에서 동파는 서군유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며 후에 서씨가 湖南으로 가자 동파는 서를 위하여 적지 않은 사를 지었다. 그의 유명한 〈浣溪沙〉連作詞 5수는 그의 서군유와의 우의를 묘사한 것으로 그의 황주에서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小序가 있는데 “12월 2일 비온 후에 약간 개였는데 太守 徐君猷가 술을 가지고 찾아와서 座上에서 〈浣溪沙〉 3수를 지었다. 이튿날 술이 깨자 눈이 크게 내려 또 2수를 지었다.”(十二月二日, 雨後微雪, 太守徐君猷攜酒見過, 座上作〈浣溪沙〉三首, 明日酒醒, 雪大作, 又作二首)<sup>59)</sup>라고 하였다. 이 5수의 사는 隔日로 두 번에 완성하였는데 모두 “蘇”·“酬”운을 사용하였다. 그 제1수(覆塊青青麥未蘇)<sup>60)</sup>는 손님을 맞는 것으로 서군유가 술을 가지고 내방하여 동파가 대문에 나가 맞는다. 황주 臨高亭의 겨울 풍경을 묘사하였다. 제2수(醉夢醺醺曉未蘇)<sup>61)</sup>는 손님에게 연회를 베푸는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제4수(半夜銀山上積蘇)<sup>62)</sup>와 제5수(萬頃風濤不記蘇)<sup>63)</sup>는 동파가 이튿날 술이 깬 후에 온천지에 큰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것을 보고 그 느낌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전고를 사용하여 서군유와의 친밀한 정의를 그린 제3수<sup>64)</sup>를 든다.

雪裏餐氈例姓蘇.	눈 속에서 털담요를 먹는 것은 의례 姓이 蘇이니,
使君載酒爲回車.	使君은 술을 싣고 나를 위해 수레를 돌렸네.
天寒酒色轉頭無.	하늘이 추우니 술 빛깔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없어지네.

59)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94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39쪽.

60)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94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39쪽.

61)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97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1쪽.

62)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00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4쪽.

63)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01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6쪽.

64)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98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3쪽.

薦士已聞飛鶚表,	선비를 추천하여 이미 새매의 表文을 바쳤다는 것을 들었으나,
報恩應不用蛇珠.	은혜에 보답하는데 마땅히 뱀의 진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네.
醉中還許攬桓鬚.	취중에 그래도 桓伊의 수염을 잡는 것을 허락하네.

후에 서균유가 황주를 떠나게 되자 동파는 〈醉蓬萊〉(笑勞生一夢)<sup>65</sup> · 〈好事近〉(紅粉莫悲涕)<sup>66</sup>을 지어 작별하였다. 동파는 역경에 처했을 때 서균유의 그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그를 영원히 감명시켰다. 그의 사후에는 〈西江月 · 姑熟再見勝之, 次前韻〉(別夢已隨流水)<sup>67</sup>을 지어 그에 대한 슬픔을 간절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동파가 황주에서 교분을 맺은 다른 한 친구는 朱壽昌이다. 주수창의 자는 康叔, 일찍이 郎曹를 지냈다. 어려서 모친의 소재를 몰랐지만 벼슬을 버리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찾기 15년만에 佛經을 피로 쓰는 등 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熙寧 초에 蜀에 들어가다가 同州에서 만나 맞아서 돌아왔다. 동파는 일찍이 시를 지어 그의 행위를 찬미한 바 있다. 동파가 황주에 있을 때 마침 주수창은 鄂州 知州였다. 약주는 지금의 武昌이다. 동파가 황주에 있을 때 2수의 시를 지어 주수창에게 주었는데 하나는 〈江神子〉<sup>68</sup>이고 하나는 〈滿江紅 · 寄鄂州朱使君壽昌〉(江漢西來)<sup>69</sup>이다. 〈江城子〉는 大雪 중에 주수창을 그리워하여 지은 것이다.

〈큰 눈이 내려 朱康叔 使君을 그리워하였는데 또한 사군도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알았다. 이를 지어 그에게 부쳤다〉(大雪, 有懷朱康叔使君, 亦知使君之念我也. 作此以寄之.)

6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7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98쪽.  
 6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9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69쪽.  
 6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2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12쪽.  
 6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30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7쪽.  
 6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4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35쪽.

黃昏猶是雨纖纖。	황혼에도 아직도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曉開簾。	새벽에 발을 열어,
欲平檐。	처마를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 듯하네.
江闊天低,	강은 넓고 하늘은 낮은데,
無處認青簾。	푸른 발을 볼 곳이 없네.
孤坐凍吟誰伴我,	외로이 앉아 언 채 읊는데 누가 나를 동무할 것인가?
措病目,	병든 눈을 닦고,
撚衰髻。	시든 구레나룻을 비트네.

使君留客醉厭厭。	使君은 객을 만류하니 취하여 거나한데,
水晶鹽。	수정 같은 소금이라네.
爲誰話。	누구를 위하여 달콤한가?
手把梅花,	손에 매화를 잡고, 70)
東望憶陶潛。	동쪽을 바라본 陶潛을 추억하네.
雪似故人人似雪,	눈은 친구 같고 사람은 눈 같으니, 71)
雖可愛,	비록 사랑스럽지만,
有人嫌。	혐의하는 사람이 있네.

黃州에 있을 때 또 한 편의 친구를 그리는 절묘한 시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懷念을 그렸는데 직접 속마음을 편 것이 아니라 하나의 夢境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에 대한 친밀한 情誼를 나타낸 것이다. 懷舊와 抒情이 교차된 정말로 빼어난 天趣가 있다. 이 사가 〈水龍吟〉(小舟橫截春江)<sup>72)</sup>이다. 閻丘公顯은 동파의 친구로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姑蘇에 거처할 때 동파는 매년 지날 때마다 반드시 그리워하였다. 그가 黃州 태수였을 때 棲霞樓를

70) 劉宋 陸凱가 江南에 있을 때 長安에 있는 친구 范曄에게 매화 한 가지를 꺾어 부치고 시를 한 수 지어 보낸 것을 말한다: “折梅逢驛使，寄於隴頭人。江南無所有，聊贈一枝春。”

71) 東晉 王徽之가 雪夜에 剡溪에 살던 친구 戴逵를 찾아간 고사를 사용한 것이다. 劉義慶, 余嘉錫 箋疏, 周祖猷 等 整理, 《世說新語箋疏》(修訂本)(上海古籍, 1993. 12.), 〈任誕篇〉 47조, 759쪽 참조.

7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1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49쪽.



지었는데 동파는 황주에 편적되었을 때 그를 그리워하여 꿈을 꾸었으며 깨어나 이사를 지은 것이다.

小舟橫截春江，	작은 배는 봄 강을 가로 잘랐으니，
臥看翠壁紅樓起。	누운 채 푸른 벽에 붉은 누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네.
雲間笑語，	구름 사이에서 웃고 말하니，
使君高會，	使君의 고상한 모임에，
佳人半醉。	佳人이 반쯤 취하였네.
危柱哀絃，	높은 기러기 발과 슬픈 [거문고] 줄，
艷歌餘響，	아름다운 노래의 남은 울림，
繞雲縈水。	구름을 에워싸고 물을 감도네.
念故人老大，	생각건대 친구는 늙어가도，
風流未減，	풍류는 아직 덜하지 않을 것이지만，
空回首·煙波裏。	[나는] 한갓 고개를 돌려 바라볼 뿐이네 내긴 파도 속에서.

推枕惘然不見，	베개를 밀치고 살펴보아도 아득히 보이지 않고，
但空江·月明千里。	다만 빈 강에 달만이 천 리에 밝다네.
五湖聞道，	五湖에서 도를 듣고，
扁舟歸去，	扁舟로 돌아가는데，
仍攜西子。	여전히 西子를 데리고 갔네.
雲夢南州，	雲夢의 남쪽 모래톱，
武昌東岸，	武昌의 동쪽 강둑，
昔遊應記。	옛날의 노닐던 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하리.
料多情夢裏，	생각건대 다정한 이는 꿈 속에서，
端來見我，	반드시 나를 보러 올 것이니，
也參差是。	[그도] 또한 거의 그러할 것 같네.

그밖에 황주의 동파를 찾아온 董毅夫에게 〈滿江紅〉(憂喜相尋)<sup>73)</sup>, 황주에서 벼슬을 버리고 황주에 산 지 33년이 된 王長官에게 존경을 나타낸 〈滿江

7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8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83쪽.

紅)(三十三年)<sup>74</sup>, 황주에서 張懷民과 痛飲했던 정경을 읊은 〈南歌子〉(衛蘅元勳後)<sup>75</sup>, 황주에서 풀려난 후에 金陵을 거쳐 泗州에 이르렀을 때 지은 劉倩叔(곧 劉仲達)에게 준 〈浣溪沙〉(細雨斜風作小寒)<sup>76</sup>, 항주에 있을 때 吳興에서 張先 등 다섯 사람과 만났을 때 장선이 〈六客詞〉를 지었는데 15년 후에 오흥에서 다시 張仲謀 등 다섯 사람과 만났을 때 장중모의 청에 따라 즉석에서 지은 〈定風波〉(月滿蒼溪照夜堂)<sup>77</sup> 등이 있다.

동파의 친구 가운데는 또 친밀한 승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參寥子이다. 그는 이름이 道潛, 자가 參寥, 於潛 사람이다. 元豐 원년 동파가 徐州 태수였을 때 삼료자는 항주에서 서주로 와서 만나 4개월 동안 함께 살았고 동파는 그와 함께 산수에 노닐며 서로 창화하였다. 후에 동파가 황주로 폄적되자 삼료자와 항상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不遠千里하고 황주로 찾아와 雪堂에서 서로 만났다. 元祐 4년 동파는 두번 재로 항주 지주가 되어 그와 만나게 되었다. 후에 동파가 惠州로 폄적되자 삼료자는 항상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그는 비로 승려였지만 또한 詩友이기도 하였고 동파의 환난 중의 摯友였다. 《東坡樂府》 중에는 元祐 6년 항주를 떠날 때 그에 게 지어 준 〈八聲甘州·寄參寥子〉<sup>78</sup>가 있다.

有情風·萬里卷潮來,	유정한 바람은 만 리에 조수를 말아왔다가,
無情送潮歸.	무정하게 조수가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네.
問錢塘江上,	물노라 錢塘江 가,
西興浦口,	西興 浦口에,
幾度斜暉.	몇 번인가 해가 비끼었는가?

7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94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71쪽.

7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12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87쪽.

7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50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50쪽.

7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84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77쪽.

7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77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68쪽.

不用思量今古,	예와 이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俯仰昔人非.	고개를 숙였다 드는 동안에 옛 사람은 아니네.
誰似東坡老,	누가 같겠는가 東坡의 늙은이가,
白首忘機.	흰 머리에 속세의 일을 잊은 것과.
記取西湖西畔,	기억하라 西湖의 서쪽 쪽,
正春山好處,	한창 봄 산이 아름다울 때,
空翠煙霏.	텅빈 푸른 산에는 내가 자욱하다네.
算詩人相得,	해아리건대 시인이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이,
如我與君稀.	나와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 것이네.
約他年東還海道,	훗날 동쪽으로 海道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여,
願謝公·雅志莫相違.	바라건대 謝公의 평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니,
西州路,	西州의 길에서는,
不應回首,	마땅히 고개를 돌려,
爲我沾衣.	나를 위하여 옷깃을 적셔서는 안 될 것이네.

《東坡樂府》 중에는 진실한 우정을 반영한 작품이 매우 많이 있다. 이러한 사 중에 나타나 있는 동파의 深厚한 정, 친구에 대한 솔직한 정회는 瀟灑 靑麗한 풍격을 통하여 유감없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파 사를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 5) 詠物詞

청말의 陳廷焯은 “시는 동파에 이르러 綺羅香澤의 자태를 씻어내고 감개를 부쳐 따로 천지가 있다. 〈水調歌頭〉·〈卜算子·雁〉·〈賀新涼〉·〈水龍吟〉의 여러 편들은 더욱 뛰어난 작품이다.”(詞至東坡, 一洗綺羅香澤之態, 寄慨無端, 別有天地. 〈水調歌頭〉·〈卜算子·雁〉·〈賀新涼〉·〈水龍吟〉諸篇, 尤爲絕構.)<sup>79)</sup>라고 하였다. 진씨가 여기서 들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영물사에 속하는 것이다.

79) 陳廷焯, 《白雨齋詞話》, 권1, 제30조.

동파 이전에는 영물사를 지은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柳永·張先·晏殊·歐陽修·晏幾道 등은 우연히 간혹 몇 수를 지은 적은 있지만 영물의 제제에 대하여는 모두 중요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 蔣敦復은 《芬陀利室詞話》 중에서 “당·오대·북송의 사인들은 그렇게 詠物을 하지 않았다.”(唐五代北宋詞人, 不甚詠物.)<sup>80)</sup>라고 한 바 있다. 동파가 창작한 영물사는 그의 송별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동파의 송별사는 사 속에서 내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독특한 풍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물사는 《東坡樂府》 중에서도 30여 수에 달한다. 작품 수도 많고 예술 수법도 뛰어나 그 자체가 詞史上에서 개척적인 공헌을 하였다. 동파의 영물사의 내용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다. 節候·海潮·달빛·눈[雪]·凌霄花·紅棉花·기러기[鴻雁]·紅梅·青橘·거문고·茶·연꽃·海棠 …… 등등이 있다. 사경은 空靈蘊藉하여 그의 마음과 견식·정감·흥취를 표현하여 託意가 高遠하여 뛰어난 작품이 많다.

그는 2수의 기러기를 읊은 시를 지었다. 하나는 〈水龍吟〉(露寒煙冷蒹葭老)<sup>81)</sup>이고 다른 하나가 〈卜算子·黃州定慧院寓居作〉<sup>82)</sup>이다.

缺月掛疏桐,	이지러진 달은 성긴 오동에 걸려 있고,
漏斷人初靜.	물시계는 끊기고 사람도 막 고요해졌네.
誰見幽人獨往來,	누가 보는가 숨어사는 사람이 홀로 오라가락하는데,
縹緲孤鴻影.	아득히 외로운 기러기의 그림자라네.
驚起卻回頭,	놀라 일어났다가 또 고개를 돌리니,
有恨無有省.	한이 있어도 돌아보는 이가 없네.
揀盡寒枝不肯棲,	차가운 가지를 다 가리도록 깃들지 않으려고 하니,

80) 蔣敦復, 《芬陀利室詞話》 권3, 3675쪽(唐圭璋 編, 《詞話叢編》, 제4책에 수록).

8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3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18쪽.

8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4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75쪽.

寂寞沙洲冷. 쓸쓸히 모래톱은 차갑네.

동파의 많은 영월사 중에서도 두드러진 작품이 중추절을 읊은 몇 수의 달을 읊은 사이다. 달은 시와 사 중에서 영원한 주제일 것이다. 唐 張若虛의 〈春江花月夜〉와 李白의 수많은 詠月詩는 그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동파가 묘사한 영월사는 장악허와 이백의 예술 전통을 배워서 서정적이고 운치가 넘친다. 南宋 胡仔는 “中秋詞는 동파의 〈水調歌頭〉가 한번 나오자 나머지 사들은 다 없어졌다.”(中秋詞自東坡〈水調歌頭〉一出, 餘詞盡廢.)<sup>83</sup>라고 하였다. 사실 동파가 묘사한 영월사는 한두 수에 그치지 않는다. 〈永遇樂·彭城夜宿燕子樓, 夢盼盼, 因作此詞.〉<sup>84</sup>는 彭城에서 밤에 燕子樓에서 잘 때 黃樓의 夜景을 묘사한 것이다.

明月如霜,	보름달은 서리 같고,
好風如水,	좋은 바람은 물과 같으니,
清景無限.	맑은 경치 가이없네.
曲港跳魚,	구부러진 항구에는 물고기가 뛰고,
圓荷瀉露,	둥근 연잎에는 이슬이 쏟아지는데,
寂寞無人見.	쓸쓸히 보이는 사람조차 없네.
摐如三鼓,	동동三更의 북[소리],
鏗然一葉,	투독 한 잎[떨어지는 소리],
黯黯夢雲驚斷.	까마득히 구름을 꿈꾸다 놀라 끊어지네.
夜茫茫·重尋無處,	밤은 아득한데 다시 찾을 길도 없어서,
覺來小園行遍.	깨어나 작은 동산을 다 돌아다니네.
天涯倦客,	하늘 가의 지친 나그네,
山中歸路,	산중의 돌아가는 길,

83) 胡仔, 《苕溪漁隱叢話》後集 권39 〈長短句〉, 337쪽.

8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20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47쪽.

望斷故園心眼。	고향[그리는] 마음과 눈도 끊어져 버렸네.
燕子樓空，	燕子樓는 비었는데，
佳人何在，	고운 님은 어디에 있는가?
空鎖樓中燕。	한갓 누각 중의 제비만이 갇혀 있네.
古今如夢，	예나 이제나 꿈 같으니，
何曾夢覺，	어찌 꿈을 깨리오?
但有舊歡新怨。	다만 옛 즐거움과 새 원망이 있을 뿐이네.
異時對·黃樓夜景，	[후인들도] 훗날에 黃樓의 밤 경치를 대한다면，
爲余浩歎。	나를 위하여 크게 탄식하리라.

동파의 영월사는 그밖에도 많이 있다. 徐州의 中秋節의 명월을 읊은 〈陽關曲〉(暮雲收盡溢清寒)<sup>85)</sup>, 황주의 七夕의 외로운 달을 읊은 〈菩薩蠻〉(畫檐初掛彎彎月.)<sup>86)</sup>, 봄 밤에 鄴水의 산중의 달을 읊은 〈西江月〉(照野瀾瀾淺浪)<sup>87)</sup> 등이 있다.

동파가 매화를 읊은 사가 많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황주 시기에 지은 〈定風波·詠紅梅〉(好睡慵開莫厭遲)<sup>88)</sup>가 있다.

好睡慵開莫厭遲。	단 잠을 천천히 깨는데 더딘 것을 탓하지 말라.
自憐冰臉不時宜。	스스로 얼음같은 얼굴[흰 매화]이 時宜에 맞지 않음을 가엾게 여기네.
偶作小紅桃杏色，	가끔 작고 붉은 복숭아꽃 살구꽃 빛을 띠우지만，
閑雅，	한가롭고 단아하게，
尙餘孤瘦雪霜姿。	오히려 외롭고 야윈 눈서리 같은 자태가 남아 있네.
休把閑心隨物態，	한가로운 마음으로 世態를 따르지 말라.
何事，	무슨 일로，

8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87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60쪽.  
 8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50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91쪽.  
 8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36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60쪽.  
 8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22쪽; 鄭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62쪽.

酒生微暈沁瑤肌。	술이 엷은 흥조를 띠우게 하여 옥같은 살을 적시는가?
詩老不知梅格在，	詩老는 매화의 격조가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吟詠，	읊조리며，
更看綠葉與青枝。	다시 푸른 잎과 파란 가지를 살펴보네.

동파는 이후에도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수많은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 향주에서 지은 〈南鄉子·梅花詞，和楊元素〉(寒雀滿疏籬)<sup>89)</sup>와 혜주에서 지은 〈西江月〉(玉骨那愁瘴霧)<sup>90)</sup>가 있는데 후자는 侍妾 朝雲의 자태를 묘사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동파의 매화시는 그밖에도 集句의 방법으로 지은 〈阮郎歸〉(暗香浮動月黃昏)<sup>91)</sup>가 있다.

동파의 영물사는 달과 매화를 읊은 것 이외에도 연꽃(〈荷華媚〉(霞苞霓荷碧)<sup>92)</sup>·〈浣溪沙〉(四面垂楊十里荷)<sup>93)</sup>), 초여름(〈阮郎歸〉(綠槐高柳咽新蟬)<sup>94)</sup>), 머들(〈洞仙歌〉(江南臘盡)<sup>95)</sup>), 陵霄花(〈減字木蘭花〉(雙龍對起)<sup>96)</sup>), 작약(〈浣溪沙〉(芍藥櫻桃兩鬪新)<sup>97)</sup>), 석류(〈賀新郎〉(乳燕飛華屋)<sup>98)</sup>), 해당(〈訴衷情〉(海棠珠綴一重重)<sup>99)</sup>), 귤(〈浣溪沙〉(幾共查梨到雪霜)<sup>100)</sup>·(菊暗荷枯一夜霜)<sup>101)</sup>) 楊花(〈水龍吟〉(似花還似非花)<sup>102)</sup>), 여주[荔支](〈減字木蘭花〉(閩溪珍獻)<sup>103)</sup>·

8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8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38쪽.  
 9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5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85쪽.  
 9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38쪽.  
 9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4, 72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2쪽.  
 9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9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93쪽.  
 9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2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10쪽.  
 9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85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00쪽.  
 9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3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2쪽.  
 9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1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08쪽.  
 9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3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66쪽.  
 9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4, 71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900쪽.  
 10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11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43쪽.  
 10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1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45쪽.  
 10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6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14쪽.  
 10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4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57쪽.

〈南鄉子·雙荔支〉(天與化工知)<sup>104</sup>)를 읊은 것이 있다. 그밖에 墨竹(〈定風波〉(雨洗娟娟嫩葉光)<sup>105</sup>), 選仙圖(〈蘇幕遮〉(暑籠晴)<sup>106</sup>)를 읊은 것도 있고, 茶(〈行香子〉(綺席纔終)<sup>107</sup>), 거문고[琴](〈醉翁操〉(瑯然)<sup>108</sup>)·〈減字木蘭花〉(神閑意定)<sup>109</sup>), 琵琶(〈虞美人〉(定場賀老今何在)<sup>110</sup>), 눈[雪](〈減字木蘭花〉(雲容皓白)<sup>111</sup>), 春景(〈蝶戀花〉(花褪殘紅青杏小)<sup>112</sup>), 海潮(〈瑞鷓鴣〉(碧山影裏小紅旗)<sup>113</sup>)를 묘사한 것도 있다.

동파의 영물사는 작품수가 매우 많으며 북송 이후 영물사의 성행을 개척하였다.

## 6) 農村詞

동파는 오랜 동안 지방관을 역임하였는데 황주 폼적 이후에도 또 폼관의 신분으로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동파가 농촌 및 농민 생활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듣게 되고 그것을 사 속에 반영함으로써 사의 내용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열게 된 것이다. 동파가 묘사하고 있는 농촌사는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그 예술 수법도 역시 매우 독특하다. 그가 묘사한 농촌사 중에는 농민들의 고생스러운 노동 생활에 대한 喜愛를 반영한 것도 있고 지방의 관리와 농민들이 함께 즐기는 정서를 반영한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농촌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한 것도

- 
- 104)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45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833쪽  
 105)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4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96쪽.  
 106)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4, 69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88쪽.  
 107)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1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99쪽.  
 108)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8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51쪽.  
 109)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1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99쪽.  
 110)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7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89쪽.  
 111)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0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51쪽.  
 112)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4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753쪽.  
 113) 薛端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4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7쪽.



있고 작자의 대자연 경물에 대한 열애를 표현하였고, 어떤 것은 歸隱의 정회를 말하고 자신의 농촌의 은거 생활에 대한 동경을 서술한 것도 있다.

농촌사라면 먼저 반드시 동파가 서주에서 그린 5수의 연작사 〈浣溪沙〉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熙寧 10년(1077) 4월 42세 때 동파는 密州에서 徐州로 부임하였다. 8월에 서주에는 대홍수가 닥쳤는데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2개월 이상의 갖은 노력 끝에 홍수를 막고 서주성을 지킬 수 있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또 가뭄이 닥쳤는데 서주의 父老들과 성의 동쪽 20리에 있는 石潭에 가서 祈雨祭를 지냈다. 다행히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자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 그때의 상황을 그린 것이 〈浣溪沙〉사이다. 제4수<sup>114)</sup>를 든다.

簌簌衣巾落棗花。	투투 옷과 두건에 대추 꽃이 떨어지네.
村南村北響鋤車。	村南 村北에 물레가 울리고 있네.
半依古柳賣黃瓜。	반쯤 옛 버들에 기대어 오이를 팔고 있네.

酒困路長惟欲睡。	술은 곤하고 길은 멀어 오직 졸릴 뿐인데,
日高人渴漫思茶。	해는 높고 사람은 목말라 만연히 차 생각이 나네.
敲門試問野人家。	대문을 두드리고 시험삼아 野人의 집에서 물네.

동파의 이 농촌사는 사는 艷科리는 綺麗한 詞風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는 白描의 수법으로 농촌의 풍광을 묘사하고 근로하고 순박한 농부를 노래하여 純厚古樸한 민간의 풍속을 반영하였으며 묘사는 신선하고 활발하며 격조는 청신하고 통속적이고 알기 쉽다. 사 중에서는 하나의 전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농촌의 풍모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동파의 농촌사에는 또 농촌의 節日·春耕·습속의 정경을 묘사한 것도 있

11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20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35쪽.

는데 역시 매우 진실하고 적절하다. 그중에는 上元(元宵)(〈蝶戀花〉(燈火錢塘三五夜)<sup>115</sup>), 춘경(〈望江南〉(春已老)<sup>116</sup>), 儂耳(海南)의 습속(〈減字木蘭花〉(春牛春杖)<sup>117</sup>)을 그린 것이 있다.

동파의 농촌사에는 농촌에 대하여 직접 묘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농촌 사람에 대한 敬重의 느낌을 묘사한 것도 있고 농촌의 歸隱 생활에 대한 동경을 묘사한 것도 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에는 〈行香子·過七里灘〉(一葉舟輕)<sup>118</sup>, 〈水龍吟〉(小溝東接長江)<sup>119</sup>, 〈鷓鴣天〉(林斷山明竹隱牆)<sup>120</sup>, 〈西江月〉(照野瀾瀾淺浪)<sup>121</sup>이 있다.

동파의 농촌사 중에는 어촌 생활에 대한 애모의 정을 묘사한 것이 있다. 4수의 〈漁父〉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제2수<sup>122</sup>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漁父醉,	漁父는 취하여,
蓑衣舞.	도롱이 옷에 춤을 추네.
醉裏卻尋歸路.	취기 속에 도리어 돌아갈 길을 찾네.
輕舟短棹任斜橫,	가벼운 배 짧은 노를 비끼고 기우는 것에 맡겨 버렸으니,
醒後不知何處.	깨어난 후에는 어디인지도 모르네.

이 사는 어부가 술에 취한 후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렸다. 어부의 逍遙自在하고 瀟灑脫塵의 생활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렸다.

이러한 생활을 그린 것에는 또 〈調笑令·效韋應物體〉(漁父)<sup>123</sup>와 唐 張

- 11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35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40쪽.  
 11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5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66쪽.  
 11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67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801쪽.  
 11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3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4쪽.  
 11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1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22쪽.  
 12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0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74쪽.  
 12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3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60쪽, 주 83)과 같음.  
 12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7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77쪽.

志和의 〈漁父〉사를 槩括한 〈浣溪沙〉(西塞山邊白鷺飛)<sup>124</sup>)가 있다.

농촌사 가운데 동파가 이상이라고 생각한 생활에 대한 상상을 그린 〈哨遍〉(爲米折腰)<sup>125</sup>)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평생 흠모한 晉 陶淵明의 〈歸去來兮辭〉<sup>126</sup>)를 은유한 것이다.

동파의 농촌사는 사의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면에 새로운 공헌을 하였다. 그는 농촌 사람들 곧 農夫·農婦·村姑·少年·漁翁들의 생활을 사 속에 끌어들이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형상은 사의 예술 창작 중에 빛을 더하게 되었다. 동파는 과거의 사가 단지 閩中 少婦의 이별의 시름을 그리기만 하던 틀을 깨뜨렸고 또한 자연 풍광에 대한 묘사에서도 또한 농촌의 자연 풍광을 사 속에 끌어들이어 짙은 진흙 냄새를 풍김으로써 詩情이 넘치게 하고 사람들의 眼界를 확대하였다.

## 7) 思鄉詞

동파는 嘉祐 원년 丙申(1056) 3월 蘇轍과 함께 부친 蘇洵을 모시고 蜀을 나온 후에, 嘉祐 2년 丁酉(1057) 모친의 喪을 입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治平 3년 丙午(1066) 6월 부친의 영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 외에는, 평생 동안 외지에서 展轉하며 벼슬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동파는 그의 사 작품 중에서 항상 자신의 고향을 언급하였는데 고향에 대한 회념과 추억은 항상 아름다움과 슬픔이 섞여 있다. 이것은 아마 장기간에 걸친 떠돌이 생활이 그에게 가져다 준 정서일 것이다.

12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7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80쪽.

12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8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70쪽.

12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8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88쪽, 주 28)과 같음.

126) 逯欽立 校注, 《陶淵明集》(北京: 中華書局, 1979), 권5, 159쪽.

그는 파란많은 정치적 풍랑과 기구한 생활 역정 중에서 늘 비애와 희망을 간직한 채 고향을 그렸던 것이다.

〈江城子〉(十年生死兩茫茫)<sup>127</sup>, 〈南鄉子〉(晚景落瓊杯)<sup>128</sup>, 〈滿江紅·寄鄂州朱使君壽昌〉(江漢西來)리<sup>129</sup>, 〈臨江仙〉(忘卻成都來十載)<sup>130</sup>, 〈鵲橋仙·七夕和蘇堅〉(乘槎歸去)<sup>131</sup>, 〈滿庭芳〉(歸去來兮)<sup>132</sup>, 〈醉落魄〉(輕雲微月)<sup>133</sup>, 〈蝶戀花·京口得鄉書〉(雨後春容清更麗)<sup>134</sup>, 〈卜算子·自京還錢塘,道中寄述古太守〉(蜀客到江南)<sup>135</sup>, 〈浣溪沙〉(山色橫侵蕪暈霞)<sup>136</sup>, 〈滿江紅〉(三十三年)<sup>137</sup> 등이 있다.

동파는 밤낮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일종의 공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또한 그의 파란많은 인생에서 큰 힘이 되었다. 〈南鄉子·和楊元素,時移守密州〉(東武望餘杭)<sup>138</sup>는 이러한 마음을 표명하고 있다. 〈水調歌頭〉(安石在東海)<sup>139</sup>는 1077년 彭門(곧 徐州)에서 아우 소철과 中秋節에 이후에 이별한 후에 쓴 唱和詞로서 이 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동파의 사 중에 나타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도처에 그의 객지 생활의 정취가 담겨 있다. 그는 21세 때 고향을 떠난 후에 부모를 奔喪한 것을 제외

12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36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141쪽.

12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26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88쪽.

12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340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335쪽.

130)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9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11쪽.

131)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3, 539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618쪽.

132)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23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06쪽.

133)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61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8쪽.

134)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5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4쪽.

135)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65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52쪽.

136)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2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914쪽.

137)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2, 454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471쪽.

138)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97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90쪽.

139) 薛瑞生, 《東坡詞編年箋證》, 권1, 188쪽;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注》, 211쪽.  
주 46) 참조.

하면 평생 동안 고향으로 가지 못하였지만 언제나 자신의 고향을 잊지 못하였다. 그의 고향에 대한 깊고 풍부하며 솔직한 감정은 그의 사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한 동파가 다정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3. 結論

동파의 시는 시의 역사에서 세 가지의 공헌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론에서 간략히 논한 바와 같다. 첫째는 시의 題材를 확대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의 言語를 개혁하고 시의 音律을 타파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婉約이 詞壇을 지배했던 종전의 국면을 깨뜨리고 풍격이 다채로운 면모를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첫째의 특징 곧 제재면에 비중을 두어 詠懷言志詞・送別詞・家庭愛情詞・友誼詞・詠物詞・農村詞・思鄉詞의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파의 시의 제재가 그 이전의 여러 사인들에 비해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확대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동파사의 제재가 단지 이 일곱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350여 수에 달하는 전체 동파사를 한 편의 논문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기타 제재의 사 작품에 대해서도 연구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참고문헌】

- 《東坡樂府箋》，龍沐助 校箋，臺北：臺灣商務印書館，1972. 12. 臺2版。
- 《東坡詞》(編年校注及其研究)，曹樹銘 校編，臺北：華正書局，1975. 5。
- 《樂府校訂箋注》，丁向恒 校注，臺北：學藝出版社，1977. 8. 新增 1版。
- 《蘇軾選集》，劉乃昌 選注，濟南：齊魯書社，1981. 3. 第2次。
- 《蘇東坡詞》(上·下)，曹樹銘 校編，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 12. 初版。
- 《蘇軾詞選》，陳邇冬 選注，北京：人民出版社，1986. 7. 第2版。
- 《蘇軾詞賞析集》(中國古典文學賞析集叢書)，王思宇 主編，成都：巴蜀書社，1990. 2。
- 《東坡詞研究》，崔海正，濟南：山東大學出版社，1992. 6。
- 《蘇軾詞研究》，劉石，臺北：文津出版社，1992. 7。
- 《東坡樂府研究》(宋代文學研究叢書)，唐玲玲，成都：巴蜀書社，1993. 2。
- 《蘇軾選集》，王水照 選注，臺北：萬卷樓，1993. 3. 初版 2刷。
- 《東坡詞索引》，仇永明·張麗水·周啓富 編，上海：華東師範大學，1993. 11。
- 《東坡詞編年箋證》，薛瑞生 箋證，西安：三秦出版社，1998. 9。
- 《蘇軾詞》(宋詞十八家)(增訂注釋)，唐玲玲 注釋，北京：文化藝術出版社，1999. 1。
- 《全宋詞》(전5책)，唐圭璋 編纂，王仲聞 參訂，孔凡禮 補輯，北京：中華書局，1999. 1. 新1版。
- 《蘇軾詩詞藝術論》，陶文鵬，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5。
- 《蘇軾詞編年校注》(전3책)，鄭同慶·王宗堂，北京：中華書局，2002. 9。
- 《蘇軾詩集》(전8책)(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清]馮應榴 輯注，孔凡禮 點校，北京：中華書局，1992. 4. 第3次。
- 《蘇軾文集》(전6책)，孔凡禮 點校，北京：中華書局，1999. 7. 제5차。
- 《蘇軾資料彙編》(전5책)(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四川大學中文系唐宋文學研究室編，北京：中華書局，1994. 4。
- 《蘇軾年譜》(전3책)，孔凡禮，北京：中華書局，1998. 2。
- 《蘇軾詩集合注》(상중하)，[清]馮應榴 輯注，黃任軻·朱懷春 校點，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6。

## Abstract

## On the Ci-Poetry of Su Dong-po

Lee, Hong-Jin

Su Dongpo is one of the greatest writers in the history of the ancient Chinese literature. His literary achievements show the depth and range in many different genres including the poetry, the prose and the Ci(詞)-poetry. At present his Ci-poetry remains 350 pieces. It has been said that his style of the Ci-poetry belongs to "Haofang(豪放)". In the main course we divide his works into the seven parts and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s follows. (1) : the articulation of the mind, (2) : the farewells, (3) : the affections between the family members, (4) : the friendly feelings, (5) : the descriptions of the natural objects, (6) : the rural life, (7) : the longing for home.

## Key Word

Su Dongpo, Style of the Ci-poetry, the "Haofang" School, the expansion of the literary materials.